

# “30살도 어린이보험 가입”... 손보, 연령 낮춰 신규고객 확보

고객 확보 통해 자본건전성 개선  
납입면제 혜택·신규 담보 등 확대  
롯데손보, 35세까지 가입 가능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가 어린이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가입연령을 대폭 확대하면서다. 신규 고객 확보를 통해 자본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손보사는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을 최대 35세까지 확대 중이다.

먼저 삼성화재는 오는 18일 ‘삼성 꿈담은 자녀보험(무배당)’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 상품은 성장기 어린이부터 사회초년생까지 가입할 수 있게 가입 나이를 30세까지 확대했다.

이 상품은 주보험 하나에 고액암·일반암·소액암,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등 3대 진단부터 입원, 수술, 치료, 재해 보장까지 성장기부터 성인에게 필

〈일반 보험상품과 무해지상품 비교 예시〉 /금감원

구분		일반상품	무해지 상품(50%형)
한금금	납입중	100% 지급	미지급
	납입후	100% 지급	50% 지급
월보험료		63,000원	38,000원
해지환급금	보험료 납입중	1,000만원	0원
	보험료 납입후	2,000만원	1,000만원

해지환급금이 일반상품대비 50%

요한 25대 핵심 보장으로 구성했다. 더불어 15세부터 30세가 기존의 성인전용 상품 가입 시 성인 인수 기준을 적용 받아 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 상품은 별도의 어린이전용 인수 기준을 적용해 가입이 쉬워졌다는 설명이다.

롯데손보도 지난 17일 15세에서 35세의 청소년과 성인이 가입 대상인 ‘렛:플레이(let:play) 자녀보험II 토닥토닥’

을 출시했다. 어린이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납입면제 혜택과 신규 담보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 자사 상품의 납입면제 대상인 일반암·유사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에 더해, 상해·질병 50% 이상 후유장애와 양성뇌종양·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의 경우도 납입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토닥토닥 자녀보험은 35세 어린이도 부담 없이 가입

할 수 있도록 납입면제 혜택과 신규 담보를 대폭 확대해 구성했다”고 말했다.

앞서 DB손보와 메리츠화재도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을 30세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 주요 손보사가 속속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을 높여가는 데는 젊은 고객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의 눈치까지 더해지며 어린이보험 판매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무·저해지보험 판매 증가와 함께 보험료 인하를 위한 과당 경쟁 심화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을 우려해 왔다.

보험사가 예정해지율을 잘못 설정해 실제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소비자는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만큼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기대하지만, 자칫 해지환급금을 과도하게 낮게 설정

한 상품(예: 해지환급률 10% 상품)은 해지율이 낮아져 보험료가 오히려 비싸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합리적인 해지율, 해지환급금 설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 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무해지형이나 저해지형을 파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자본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을 확대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무해지형이나 저해지형 상품을 파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다”라며 “사실 무해지·저해지형 상품을 팔게 되면 회사 자체는 보험을 싸게 팔아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사실은 보험사들의 신계약 가치나 내재 가치에는 좋지 않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자본건전성까지 유지하는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어린이보험을 선택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 3+2 유연근무제... 후유증 관리 프로그램

〈코로나〉

**보험 브리핑**  
DB손보 공식 인스타 30만 팔로워  
에이스손보, 직원 사무실 복귀 행사

DB손보는 공식 인스타그램이 지난 4월 30만 팔로워를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DB손보의 인스타그램은 자사의 대표 SNS 채널이다. ‘가족사랑을 지키는 약속’이라는 컨셉 하에 젊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있다.

가족사랑을 표현하는 따뜻한 이미지, 시의성을 반영한 정보성 카드뉴스, 투자 관련 꿀팁, 반려동물 탐구생활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DB손보 인스타그램의 장점이다. DB손보는 이번 30만 팔로워 달성을 기념하며 ‘30만 팔로워 감사’ 이벤트를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DB손보 관계자는 “인스타그램 30만 팔로워 달성 이벤트를 통해 고객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전해졌으면



DB손해보험 감사 이벤트.

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가족사랑, 청춘응원 관련 이벤트 등으로 고객들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스손보가 2년간의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3일 출근, 2일 재택 근무 형식의 ‘3+2 유연근무제’로 전환한다.

에드워드 콕 사장과 임직원은 지난 16일 전 직원의 사무실 복귀를 기념하는 환영 행사를 사내에서 개최했다. 임직원 모두에게 자가진단키트와 손세정제로 구성된 건강 키트와 스낵박스를

선물로 전달했다. ‘3+2 유연근무제’는 대면 소통을 통한 협업을 도모하고 아울러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직원들의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도입한 제도다.

삼성생명도 5월 가정의 달에 맞춰 18일 ‘삼성 꿈담은 자녀보험(무배당)’을 출시한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꿈담은 자녀보험’은 성장기 어린이부터 사회초년생까지 가입할 수 있게 가입나이를 30세까지 확대했다.

라이나생명은 임직원과 텔레마케터(TMR), 그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코로나 후유증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라이나생명 ‘코로나 후유증 관리 프로그램’은 사내 부속 한의원을 통해 진행한다. ▲1대1 맞춤 진단 ▲침·뜸 치료 ▲한약 처방 등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백지연 기자

## 신한금융 아시아신탁 잔여지분 40% 인수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  
‘신한자산신탁’으로 사명 변경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16일 아시아신탁의 잔여 지분 40%를 인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 2019년 5월 아시아신탁의 지분 60%를 인수하고 자회사로 편입했고 이번 잔여 지분 인수로 아시아신탁은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됐다. 아시아신탁은 이달 말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한자산신탁’으로 사명을 변경할 예정이다.

아시아신탁은 자회사 편입 후 원신한(One-Shinhan) 협업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해 지난 2021년 신규 수주 계약액이 2018년 174억원 대비 약 10배 증가한 1897억원으로

성장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 분야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통해 21년 신규 수주 계약액 MS 1위(1108억)를 달성했으며 당기순이익도 지난 2018년 242억원에서 2021년 758억원으로 같은 기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그룹의 비은행부문 주요 자회사로 발돋움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아시아신탁의 완전자회사 편입으로 그룹의 부동산 사업부문 역량이 확대되고 나아가 One-Shinhan 관점의 그룹사 협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신한금융그룹의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손태승 회장, 팬데믹 이후 첫 해외 IR 실시

〈우리금융〉

달성한 재무적 성과 등 설명

우리금융그룹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사진)이 17일 부터 2박 3일간 싱가포르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해외 IR(투자설명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당초 올해 1분기에 진행하려고 했으나 글로벌 오미크론의 일시적 확산으로 이달로 연기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실시될 이번 해외 IR은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손태승 회장은 한국 거시경제의 현황과 함께 우리금융그룹이 지주사 전환



이후 달성한 재무적 성과는 물론 ESG와 디지털분야의 비재무적 성과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완전 민영화된 우리금융그룹의 중장기 비전과 주주친화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 등에 대해 글로벌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유럽, 홍콩 지역 등으로 IR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내 투자자와의 소통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 신협중앙회

### 신규가입자 선물증정 이벤트

신협중앙회가 온뱅크의 누적 가입자 수 160만명 돌파를 기념해 신규가입자 대상 경품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음달 15일까지 약 한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추첨을 통해 온뱅크 신규 가입자 1000명에게 GS25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아울러 온뱅크 회원 중 신협 핸드폰 서비스 신규 가입자 1000명에게도 추첨을 통해 같은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온뱅크는 상호금융권 최초로 비대면 조합원 가입 및 출자금 계좌 개설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

/김정산 기자 kimsan119@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소영 교수

“새 정부 국정철학 구현 위해 최선”  
2009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는 17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부위원장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취임 소감을 통해 “국내외 금융리스크가 확대돼 경제, 금융 전반적인 상황이 어려운 중차대한 시기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만큼 비상한 각오로 소임을 다하겠다”며 “새로 오실 금융위원장과 함께 손발을 맞춰 새 정부 국정철학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금융 행정 개혁과제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부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박



김소영 신임 금융위 부위원장. /뉴스1

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은행 차문교수를 비롯해 아시아개발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연달아 컨설턴트를 지냈다. 2009년부터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일했으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을 맡아 활동했다.

/이승용 기자